

살롱~ 잘 오셨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방문이나 처음 출석하신 분들께서는 예배위원들의 안내를 받아 친교실로 가서
서 목사님, 교우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 교회소식

1. **2026년 교회표어(2026 Vision Statement)** “사막에 강을 내리라!”(이사야 43:19), “I will make rivers in the desert!” (Isaiah 43:19) — 사막에 강을 내시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봄으로 광야 같은 삶 가운데 주의 길과 생명의 강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2. **야외예배 안내(Outdoor Worship Schedule)** 다음 주일(10/4) Rocky Gap State Park – Mountain View Shelter (12500 Pleasant Valley Road, Flintstone, MD 21530)에서 야외 예배를 드립니다. 좋은 날씨와 안전과 평안을 위하여 합심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오전 11:00에 시작합니다.
3. **수요저녁예배(Wednesday Evening Worship)** 수요저녁예배가 오후 8시에 온라인으로 있습니다. 시편 34편 말씀을 주제로 예배를 드리고, 합심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4. **EM/유쓰 기도요청(Pray for EM and Youth Ministry)** EM과 유쓰의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로 동참5주 시기를 바랍니다.
5. **크리스마스 선물상자 보내기 (Operation Christmas Child)** 매년 주일학교에서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세계 각 곳의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상자 보내기(OCC)”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선물상자에는 아이들 연령에 적당한 필수품과 장난감, 그리고 전도지가 들어갑니다. 지난해에도 많은 분들이 동참하셔서 53개의 선물상자를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 보냈습니다. 올해도 여러분들께서 기도와 헌금(donation)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물상자 하나 당 선물과 운송비 \$10을 포함해서 약 \$30 정도 소요됩니다. 체크로 헌금을 하시거나 메일로 보내실 때 “OCC”라고 메모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선물상자를 직접 만들어 오실 분들은 상자를 교회에서 픽업하셔서 11/15주일까지 선물상자를 교회로 가져오시면 됩니다(세관통과 때문에 내용물에 제한이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 함께 모여 선물상자를 만들려고 하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선물상자 만들기: 시간과 장소는 추후에 공지하겠습니다.
문의: 이제화사모(443-996-9277)
6. **심방요청(Request for Pastor's Visit)** 목사님의 심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새가족부 심방팀에 연락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의: 송명희 집사 301-613-0337)
7. **지난 주일 예배통계(Last Week's Statistics):**
9/20 주일예배 출석합계: 21명(1부2, 2부15, EM3, 유아1) 헌금합계: \$1,950.00

◆ 교우동정 및 중보기도 — 성도님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 소경숙 권사: 발가락 골절 회복
2. 한명우 집사: 심장판막 역류증 회복
3. 오명현 권사: 치유와 건강 회복
4. 강무줄 권사: 건강과 평안
5. 박정숙 권사: 허리와 다리 통증 회복
6. 이고은: 치유의 기적
7. 박성아 집사: 리엘의 건강한 성장
8. 제시카: 손과 목과 눈꺼풀이 떨리는 증상



메릴랜드

소망교회

KOREAN HOPE CHURCH OF MARYLAND

2026년 9월 27일

“사막에 강을 내리라!”(이사야 43:19)
“I will make rivers in the desert!” (Isaiah 43:19)

✦ 힘과 나눔이 있는 교회
✦ 사도행전적인 교회
✦ 믿음 성장이 있는 교회
✦ 교회개혁적인 교회

교 회: 14135 Burntwoods Road, Glenwood, MD 21738
(c/o Burntwoods Church)

홈페이지: <http://mdhopechurch.org>

주일설교 영상(youtube): <http://goo.gl/numaZS>

담임목사 (Lead Pastor) : 이웅기 (Woongki Lee) ☎ 443-396-3097 (목사관)

대면예배 1:30pm / 라이브스트리밍 8:00am

2026년 9월 27일

주일예배 순서 Sunday Worship Program

인도(Presider): 이웅기 목사
Pastor Woongki LEE

[* 일어섭니다./Please stand.]

광고 Announcements Presider 인도자

경배와 찬양 Worship & Praise All Together 다같이

묵도 Opening Prayer* Presider 인도자

교독문 Responsive Reading*2번(시편 2편).....다같이
No. 2: Psalm 2 All Together

신앙고백 Confession of Faith*사도신경(Apostles' Creed)..... All Together 다같이

대표기도 Prayer이웅기 목사
Pastor Woongki LEE

찬양 Hymn14장 주 우리 하나님(통30).....다같이
The God of Abraham All Together

헌금봉헌 Offertory*다같이
All Together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골로새서(Colossians) 1:13~23.....교독/다같이
Response Reading/Together

말씀선포 Message.....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이웅기 목사
Pastor Woongki LEE

현신의 찬송 Hymn.....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통495).....다같이
Since Christ My Soul From Sin Set Free All Together

축도 Benediction*이웅기 목사
Pastor Woongki LEE



함께 기도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마7:7)

-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는 교회 되게 하소서
-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교회와 가정과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소서
- 성도들 가정에 평안과 건강을 주시고 근심이 없게 하시고, 부족한 것 없도록 채워주소서
-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소서
- EM, YM 예배가 부흥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성장하도록 도와주소서
-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지켜주소서 — 학업 성취, 취업, 성실한 직장생활, 좋은 친구, 결혼 등등



오늘의 말씀 메모합시다!



이것만은 꼭 기억합시다! 지난 주 설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행 27:1-12)

바울의 로마 항해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지만, 순풍이 아니라 계속되는 역풍 가운데 시작됩니다. 본 문은 하나님의 뜻이 늘 빠르고 편한 길로 나타난다는 생각을 깨뜨립니다. 바울은 2년 동안 갇혀 있었고, 겨우 배를 탔는데도 바람은 거슬러 불며 항해를 막습니다. 환경은 하나님의 부재를 증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환경을 없애지 않으셔도, 시몬의 성도들과 아리스다고 같은 사람들을 통해 바울을 세밀하게 돌보십니다. 바울의 여정은 행통이 무엇인지를 다시 보게 합니다. 행통은 모든 일이 만사행통으로 잘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행통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요셉을 불드셨던 하나님께서, 어려운 자리에서도 필요한 은혜와 사람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가는 길에서도 복음의 일꾼 아리스다고를 곁에 두시고, 백부장 율리오의 배려를 통해 친구들의 섬김을 받게 하십니다.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습니다. 백부장의 판단은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합리적입니다. 배에 관한 일은 당연히 전문가에게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장과 선주는 바다를 오래 경험했어도 내일의 바람은 알지 못합니다. 바울 역시 기도만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번 파선도 당하고 깊은 바다에서 밤낮을 지낸 경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은 전문성과 경험 자체를 무시하지 않지만, 그것들이 인간을 목적지까지 책임질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다수의 결정도 미항보다 더 좋아 보이는 뱃길로 가는 쪽을 택합니다. 좋아 보이는 항구, 편해 보이는 길, 많은 사람이 선택한 길이 반드시 안전한 길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 앞의 열매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불편한 길을 지나게 하시며, 믿음은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서 드러납니다. 바울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던 이유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배는 결국 깨어질 수 있고, 환경과 사람과 경험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풍랑이 전혀 없는 인생만 약속하지 않으시지만, 풍랑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목적지까지 데려가십니다.

10/4/26 예배순서 담당자		대표기도	성경봉독	헌금 / 안내위원
	장년, EM/유쓰 예배	대면예배 오후1:30 / 라이브스트리밍 오전8:00		
	2부 대면예배	한명우 안수집사	교독 / 다같이	TBD